

## 六味地黄湯加味方으로 치료한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험 5례

박호순 · 김윤범 \*

### Five Cases of Atopic Dermatitis

*Ho-soon Park · Yoon-bum Kim \**

**Introduction:** Atopic dermatitis is chronic eczematous recurrent disease of skin and till now its mechanism is not clearly known. It is related to a family history of atopic disease. It has severe itching and it causes eczema secondarily. Atopic dermatitis has mostly severe symptoms and progresses to chronic relapsing.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fficacy of herb-medicine treatment on atopic dermatitis.

**Subjects:** I treated 5 patients who visited Chungbalsan Kyunghee oriental medical clinic with atopic dermatitis from September, 2001 to October, 2002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were observed for over 2 months.

**Methods:** I treated them with herb-medication and external application. (Atopione)

---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Herb-Medicine Treatment, External Application(Atopione)

### 서론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심한 피부 소양감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이차적 습진이 형성되는 질환이다<sup>1)</sup>. 알레르기성 습진, 소아습진, 전굴부 습진, Besiner 소양증 등으로 불리워지며<sup>2)</sup> 소아에서 흔하고 소아 피부

---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비인후피부과교실  
· 교신저자 : 박호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정발산경희한의원  
(Tel : 031-915-1475, E-mail : hosooni@hanmail.net)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피부질환 중 하나이다<sup>1)</sup>.

한의학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명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은 없으나 증상으로서 奶癬, 胎癬, 胎疥瘡, 四疔風 등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으며<sup>3)</sup>, 胎中에 母體로부터 熱邪를 받아 생기는 것을 胎熱이라고 하고, 유·소아기에 생기는 염증상태를 胎毒이라하며, 이 胎毒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胎瘡이라 하였다<sup>4,5)</sup>.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기에는 風熱, 濕熱의 양상을 나타내지만 만성기에는 血熱과 血燥의 양상을 보인다. 저자의 임상경험으로 볼 때 사춘기 이전의 초등학생에게서는 血熱, 血燥의證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血熱, 血燥證은 虛勞로 인한 腎水의 고갈로 火가 動하고 肺金이 相克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六味地黃湯을 기본방으로 사용하여 치료한 5례를 선별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 연구대상 및 치료방법

### 1. 연구대상

2001년 9월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타의료 기관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고 정발산경희한의원에 내원하여 2개월 이상 한방치료를 받고 뚜렷한 호전을 보인 환자 중에서 5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치료방법

치方は 六味地黃湯을 기본으로 加味하였다.

#### 1) 基本方

生地黄 24g, 山藥(留皮) 山茱萸 各 12g, 當歸 枸杞子 澤瀉 牡丹皮 白茯苓 生薑 各 6g

滋陰之劑의 基本方인 六味地黃湯에서 熟地黃을 生地黄으로 대체하여 滋陰기능을 배가하고, 當歸 枸杞子를 加하여 補血작용을 보강했다.

#### 2) 加味

①風熱證이 많으면 金銀花 連翹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을 加味하고

②濕症이 많으면 薏苡仁 蒼朮 陳皮를 加味하였다.

金銀花 連翹를 加味함은 清熱解毒하는 효능을 얻고자 함이고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을 加味하여 發散表邪 祛風하고

蒼朮 薏苡仁은 健脾燥濕의 효능으로 加味하였다<sup>6)</sup>.

#### 3) 外治

한방 아토피원 보습크림 <부용; 대구시 북구 복현동 72-14, 製造원:(주)비봉파인>

## 증례

### 1. 증례 1

1) 환자 : 오 ○ ○, 8세, 여아, 127 cm, 29 kg

2) 주소증 : 피부건조, 소양

3) 발병일 : 두 돌 이후에 강한 햇볕에 노출된 이후에 생겼다고 함.

4) 과거력 : 매년 겨울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주로 콧물, 코막힘)으로 치료를 받음.

5)치료기간 : 2002년 9월 15일-2002년 10월

17일 (3차 내원)

6)치료 및 경과

2002년 9월 15일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부는 회고 약간 통통한 체격이고 脈은 浮弦하고 舌紅赤하였다. 목 부위가 태선화, 건조성 홍반성 판 등의 병변으로 가장 심했고 팔다리엔 많이 긁은 듯한 찰상이 있었다. 기본방에 금은화 연교 각 4g를 더한 20첩을 15일간 복용케 하고 다시 내원하게 하였고 외용으로 한방 아토피원 보습크림을 사용하게 했다.

2002년 10월 3일 2차로 내원하였을 때는 소양증이 감소되고 피부건조도 조금은 개선되었다. 재차 20첩을 복용케 하였다.

2002년 10월 17일에 3차 내원시에는 가장 심했던 목부위가 약간의 색소침착 정도만 남고 깨끗해졌으며, 건조증상도 소실되었다. 한약은 증상이 재발하면 복용하길 권했으나 보호자가 원하여 20첩을 재차 투여하였다. 차후에 재발 하면 다시 내원키로 하였다.

2. 증례 2

1) 환자 : 김 ○ ○, 9세, 남아

2) 주소증 : 소양증(甚), 가피, 출혈부위에 삼출물

3) 발병일 : 3세 이후, 1개월 전부터 심해짐

4) 과거력 : 알레르기성 비염

5) 치료기간 : 2002년 4월 25일-6월 25일(3차 내원)

6)치료 및 경과

2002년 4월 25일에 처음 내원하였다. 3세 이후부터 가끔씩 피부건조 및 소양증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연교(더마툼)를 사용하여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1개월전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동네 피부과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

고 내원하였다. 통통한 체격에 피부는 약간 검고 脈은 浮數하고 舌紅苔薄하였다. 가려움증이 심해서 소파로 인한 상처가 많고 삼출물이 있는 상태였다. 기본방에 형개 방풍 각 4g, 강활 독활 금은화 연교 각 3g, 지각 길경 산사 각 4g, 의이인 10g을 가하여 20첩을 15일간 복용케 하고 1개월 뒤에 내원키로 하였다.

2002년 5월 25일에 2차 내원하였다. 가려움증은 소실되고 소파로 인한 상처만 조금 남은 상태였고 본인도 더 이상 긁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2년 6월 25일에 3차 투여하고 가을쯤에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키로 하였다. 확인 결과 현재(2002년11월초)까지 피부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다.

3. 증례 3

1) 환자 : 양 ○ ○, 11세, 여아

2) 주소증 : 피부건조, 소양증

3) 발병일 : 유아기부터

4) 치료기간 : 2002년 9월 6일-2002년 10월 28일(4차 내원)

5) 치료 및 경과

피부과와 한의원에서 증상에 따라 가끔씩 치료하다가 3년 전부터는 한방치료를 위주로 하였고 2002년 9월 6일에 본원에 내원하였다. 2002년 여름방학 때 무의도해수욕장에 다녀온 뒤로 복부에도 증상이 나타나서 동○○한의원 에서 한약을 복용하다가 내원하였다. 검은 피부에 마른 체격으로 脈은 浮細數하고 舌紅赤하였고 피부는 팔다리에서 수태음경과 족양명경, 족소양경을 따라 깊은 찰상과 가피가 혼재하는 증상이 분포하는 양상이었다. 기본방에 금은화 4g, 연교 형개 방풍 각 3g, 강활 독활 각 2g을

가하여 20첩을 18일간 복용케 하고 외용으로 한방 아토피원 보습크림을 사용케 하였다.

9월 28일에 전화상으로 10첩으로 2차 복용하였다.

10월 4일 2차 내원 당시 망진상으로는 경락을 따라 분포하던 병변의 깊이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으나 보호자는 소양증과 하지부의 건조감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3차로 20첩을 처방하였다.

10월 28일 내원시에는 경락을 따라 분포하던 병변들의 1/3 가량은 찰상과 가피가 없어지는 상태였다. 4차로 20첩을 처방하고 15일 정도는 한약복용을 쉬기로 하였다.

4. 증례 4

- 1) 환자 : 한 ○ ○, 9세, 여아
- 2) 주소증 : 소양증, 피부건조
- 3) 발병일 : 유아기부터 조금씩 최근 1개월 사이에 심해짐.
- 4) 과거력 : 알레르기성 비염, 감모시엔 편도선염과 고열이 동반함.
- 5) 치료기간 : 2001년 9월 24일-2001년 10월 28일(3차 내원)
- 6) 치료 및 경과

찬바람이나 에어컨을 조금만 켜어도 재채기, 콧물, 코막힘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나고 편도선염을 동반한 감기로 이어져 가끔씩 중이염도 생긴다고 한다. 1개월에 1-2주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한다고 한다. 최근 1개월 사이엔 피부에 소양, 건조가 심해졌으나 별다른 치료는 행하지 않고 2001년 9월 24일에 보약을 쓰길 위해 내원했으나 상기증상을 치료하기로 하였다. 마르고 활동적인 여아로 脈은 細數하고 舌紅赤하였고 나이에 비해 편도선이 상당히

커서 보호자는 수술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기본방에 금은화 형개 각 6g, 연교 방풍 강활 독활 각 3g을 가하여 10첩을 9일간 복용케 하였다.

10월 6일 2차 내원시엔 콧물이 오히려 늘었다. 脈이 浮細數하여 일시적인 感冒症狀으로 보고 재차 10첩을 투여하였다.

10월 28일 내원시엔 식욕이 증가하고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한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첩을 처방했다.

2002년 1월에 환자의 부친이 내원했을 때 확인 결과 한약복용이후로 상기증상이 개선되고 비염으로 인한 병원치료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5. 증례 5

- 1) 환자 : 박 ○ ○, 7세, 남아
- 2) 주소증 : 발적, 구진, 소양증
- 3) 발병일 : 3년전
- 4) 과거력 : 別無
- 5) 치료기간 : 2002년 5월 24일-2002년 6월 30일(3차 내원)
- 6) 치료 및 경과

4세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으로 증상이 심하면 가끔씩 피부과 치료를 받아오던 다소 통통한 체형의 남아로 한약으로 치료받길 원해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에는 가벼운 소양증이 있다고 하였고, 군데군데 발적과 구진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脈은 浮細數하고 舌은 紅赤하였다. 알레르기성 비염증상을 겸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본방에 금은화 4g, 형개 방풍 강활 독활 각 3g을 가하여 10첩을 8일간 복용케 했다.

6월 3일 2차 내원시엔 구진은 여전하고 발적은 감소하였고 보호자는 덜 굶는다고 하였다. 脈이 細數하고 舌은 紅赤하였다. 20첩을 동일하게 처방하였다.

6월 30일 내원시엔 체중이 감소(2kg)하고 피부에 색소침착 정도만 남고 발적과 구진은 모두 소실되었으나 2-3일에 한 번 정도는 무척 가려워한다고 했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20첩을 더 處方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 고찰 및 결론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와 소아에 발생하는 흔한 만성 혹은 재발성 피부염이다. 소양증이 심한 습진이 발생하며, 아토피질환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서 흔히 나타난다<sup>2)</sup>.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경과를 취하므로 편의상 연령에 따라 유아기(0-2세), 소아기(4-10세), 사춘기 및 성인기(12-23세)로 분류한다<sup>1)</sup>.

주로 유소아기에 발생하여 진행하면서 연령, 영양, 기후, 피부증상의 정도,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인자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임상경과를 취한다. 대개 2세 이후에 소실되며 사춘기가 되면 병소가 사지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발병시기가 늦거나 유아의 피부증상이 심했던 예에서는 대체로 질병의 지속시간이 길어지며 결국에는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병발하기도 한다<sup>7)</sup>.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로 치료의 목적은 발생인자 및 소양감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해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sup>8)</sup>.

현재 사용하는 치료법은 악화 원인의 파악 및 회피, 알레르겐의 회피,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복용, H2 길항제 및 항우울제의 사용, 국소용 스테로이드, 타르요법, 항염증치료 등의 방법과 함께 타이모펜틴, 인터페론, 정주용 감마글로블린, 싸이클로스포린과 타그로리무스 등의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에 시행하는 UVA, UVB, PUVA 등의 광선치료법도 병행하고 있다<sup>9)</sup>.

아토피 피부염은 한의학적으로는 奶癬, 胎癬, 胎斂瘡 등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sup>3)</sup> 이에 대한 역대문헌을 살펴보면 隨代의 《諸病源侯論·小兒染病諸侯·癬候》<sup>10)</sup>에서는 “小兒面上 癬疥如甲錯起乾燥 謂之乳癬. 言兒飲乳 乳汁漬汚兒面 變生此證.” 이라고 하였고 明代의 《外科正宗·奶癬》<sup>11)</sup>에서는 “奶癬因兒在胎中 母食五辛 父爨炙燻 遺熱與兒. 頭面遍身發爲奶癬 流脂成片 睡臥不安 瘙癢不絕.”이라 하였으며 清代의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嬰兒部·胎斂瘡》<sup>12)</sup>에서 “此證生 嬰兒頭頂 或生眉端 又名胎癬. 痒起白屑 形如癬疥 由胎中血熱 落草受風纏綿 此系乾斂. 由誤用燙洗 皮膚起粟 瘙癢無度 黃水浸淫 延及遍身 卽成濕斂.” 이라 하여 奶癬과 동일질병임을 말하였다. 증상으로는 乾斂과 濕斂으로 구분하여 乾斂은 痒起白屑, 形如癬疥하고 濕斂은 誤用湯洗, 皮膚起粟, 黃水浸淫, 延及遍身하다고 하여 그 치료의 대강을 크게 乾性和 濕性으로 나누었다. 《聖濟總錄》<sup>13)</sup>에서는 得寒則稍減 燠則痒悶한다고 하여 寒熱 중에서 특히 熱이 그 원인이 됨을 논하였다.

한의학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병리기전은 體質의 脾胃氣虛 때문에 濕熱의 邪氣를 감수하기 쉽게 되어 胃의 痰飲이 일어나고 脾胃

의 건전한 기능이 손상을 입은 體質虛弱한 小兒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腠理에 濕熱症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선천적으로 허약하며 脾의 건전한 運行機能을 상실한 사람에게 濕熱邪가 丙에 발생하면 風熱邪가 皮膚에 浸潤해서 발생되고 발작을 반복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脾虛血燥로 되어 皮膚의 營養失調를 일으킨다고 보았다<sup>14)</sup>.

본방 《生地黄 24g, 山藥(留皮) 山茱萸 各 12g, 當歸 枸杞子 澤瀉 牡丹皮 白茯苓 生薑 各 6g》은 滋陰補血生津液 清血熱이 주된 작용으로 風濕熱邪에 의한 燥症을 潤하게 하는 작용으로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血熱, 血燥의 證에 處方되어야 하고 風熱證이 많으면 金銀花 連翹 荊芥 防風 羌活 獨活을 加味하여 치료하고, 濕症이 많으면 薏苡仁 蒼朮 陳皮를 加味하여 치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본원에 소아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내원한 환자로 육미지황탕가미방을 중심으로 처방되고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서 치료성적이 우수한 경우에서 5례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는데, 사춘기이전의 초등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血熱, 血燥의 證에 육미지황탕가미방이 유효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고 사료된다.

외용으로 쓰여진 한방 아토피원 보습크림은 위의 5례 외에도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사용해보았는데, 전신보습작용이 우수하다고 여겨지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李惟信. 임상피부과학2. 麗文閣. 1994: 22-7, 323-4.
2.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학3. 麗文閣. 1994:82.
3. 顧伯華.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461.
4. 강병수. 한방임상 알레르기. 서울:성보사. 1998:196,201.
5. 경산대학교 한방요법과교실. 임상단식법. 대구:경산대학교. 1993:2,14.
6.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 공편. 본초학. 영림사. 1991:127, 128, 131, 190, 193, 198, 199, 260, 289, 302, 305, 306, 537, 578, 596, 626.
7. 성호석. 아토피 피부염의 자연경과와 임상증상. 알레르기학회지 춘계학술대회초록집. 1989;9(2).
8. 구영희, 최인화. 만성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험 3례. 대한안ibi인후피부과학회지. 2002;15(1):140-149.
9. 이혜란. 아토피 피부염. 소아과학회지. 2000;43(9):1161-1167.
10. 巢元方. 諸病源候論. 上海:集文書局. 1976:505.
11. 陳實功. 外科正宗 1.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269.
12. 吳謙. 醫宗金鑑.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443-4.
13. 曹孝忠. 聖濟總錄. 臺北:新文豐出版社. 1978:1439-40.
14. 중도일. 피부과의 한방치료. 서울:일중사. 1991:68-71.